

오층탑(오층소탑)

중요문화재

나라 시대(710~794 년) 전기에 만들어진 이 탑은 실내에 안치된 탑으로는 일본에서 가장 작고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. 가이류오지 절의 동금당(東金堂)과 서금당(西金堂)에 있던 한 쌍의 탑 중 한쪽 탑만이 현존하고 있습니다. 오층탑은 10m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, 절 부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크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야외에 세워진 탑과는 달리 가까이서 보는 것을 가정해 제작된 이 탑은 지붕이나 처마의 세밀한 조각에서 탁월한 장인의 솜씨가 엿보입니다. 모든 불교 사원의 탑과 마찬가지로 이 탑도 석가모니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.